

경제

르포 ■ '파업후 휴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가보니

주문량 맞추려 비조합원들이 긴급 가동

“고객 요구 외면엔 회사 망한다” 위기감 팽배 노조 파업으로 공급 차질... 휴가 후에도 태업



4일 오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비상 근무에 나선 직원들이 출고된 타이어가 이상 없는 지 외관을 검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4일 오후 찾아간 광주시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공장 들어가는 기계음보다 매미소리가 더 컸다. 지난달 파업과 태업을 거듭하던 노조원들이 지난 1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여름휴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휴가 직전까지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타이어 생산량을 평소의 50%로 줄이는 태업을 벌였던 2천300여 노조원들의 자취는 찾기 힘들었다. 대신 공장에는 이 회사 일반직·현장관리자 등 비노조직원 288명이 지키고 있었다. 이들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무더위와 씨름하며 타이어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자신의 고유 업무가 아니어서 다소 서툴었지만, 회사를 살리겠다는 열정은 삼복더위조차 날려보내기에 충분했다. 이들이 비상가동에 나선 것은 자동차 회사 및 딜러 등 고객들이 요청한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다. 휴가 기간 동안 광주공장에서 8천262개, 곡성공장에서는 1만8천100개 등 모두 2만6천362개의 타이어를 내놓아야 한다. 자칫 시장 경쟁력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신뢰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서울 사무소 직원 45명도 '타이어라도 옮기겠다'며 급히 내려왔다. 한 직원은 "입사한 지 23년째지만 정기 휴가 기간에 근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고 또 다른 직원은 "미리 가족들과 세워놓은 휴가 계획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노조의 파업과 태업으로 빚어진 공급 차질을 비조합원들이 대신 메우고 있는 셈이다. 김중호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도 이날 광주공장을 찾았다. 타이어를 출고 차량에 싣는 작업이라도 돕겠다며 달려왔다. 당장 5일 목요일 출국, 해외 바이어들과 만나야 하는 압박한 일정보도 휴가 기간까지 출근한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이 앞서 일일이 손

을 잡고 격려했다. 이날 하루 광주공장 생산량은 3천60개. 평소 생산량 4만5천개의 0.06%에 불과하고 생산량을 감소한 지난달 13일~23일까지의 하루 생산량(광주 2만8천882개·곡성 3만8천953개)의 10% 수준이다. 김 대표이사는 "담당자들이 아닌 테 타이어를 만들어야 얼마나 만들겠느냐"면서 "고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 나와준 직원들이 고맙다"고 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휴가가 끝난 6일부터 생산량을 50% 줄이는 태업을 다시 시작한다. 공장 외벽 곳곳에 노조가 내건 '정리하고 고쳐달라'고 하는 구호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금호타이어의 '위기'를 말해 주는 듯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김 대표이사는 "담당자들이 아닌 테 타이어를 만들어야 얼마나 만들겠느냐"면서 "고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 나와준 직원들이 고맙다"고 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휴가가 끝난 6일부터 생산량을 50% 줄이는 태업을 다시 시작한다. 공장 외벽 곳곳에 노조가 내건 '정리하고 고쳐달라'고 하는 구호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금호타이어의 '위기'를 말해 주는 듯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김 대표이사는 "담당자들이 아닌 테 타이어를 만들어야 얼마나 만들겠느냐"면서 "고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 나와준 직원들이 고맙다"고 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휴가가 끝난 6일부터 생산량을 50% 줄이는 태업을 다시 시작한다. 공장 외벽 곳곳에 노조가 내건 '정리하고 고쳐달라'고 하는 구호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금호타이어의 '위기'를 말해 주는 듯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김 대표이사는 "담당자들이 아닌 테 타이어를 만들어야 얼마나 만들겠느냐"면서 "고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 나와준 직원들이 고맙다"고 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휴가가 끝난 6일부터 생산량을 50% 줄이는 태업을 다시 시작한다. 공장 외벽 곳곳에 노조가 내건 '정리하고 고쳐달라'고 하는 구호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금호타이어의 '위기'를 말해 주는 듯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중소상인 '환영'·대기업 '불만'

SSM 사업조정권 시·도지사 이양 희비

중소기업청이 5일 기업협수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해당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지자체로 넘어온 사업 조정 권한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을 비롯해 좀더 체계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중소기업청은 이번 고시 내용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했다.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니까 아무래도 지역 상인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환영하면서도, "조정협의회 구성을 비롯해 '자율조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롯데슈퍼 정병구 홍보과장은 "지자체마다 조례 등 기준이 달라서 출점 절차가 복잡해지고 규제가 강화돼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단체가 대기업의 시장진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조사신청제도에 대해 유통업체는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SSM 오픈 정보를 알려줘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사업조정 신청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며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SSM 사전 허가제와 다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의 경우 이번 대책이 유통업체의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광주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이양된 사업조정 권한이라는 개념적인 강제성을 띤 권한이 아니라 '자율조정'을 통한 조정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가 지역여건을 바탕으로 사업조정을 할 경우 대형 유통업체, 지역 소상공인, 지역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책임 회피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했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쉬워진다

'예외규정 확대 법' 통과

국토해양부는 4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규정 확대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통한 역세권 고밀개발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를 전면 허용하려고 했던 방침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따른 보완 조치로, 예외적인 지위양도 허용을 확대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지금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경우 5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양도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경우 2년 이상 해당 주택 소유자로 범위를 넓혔다. 또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5년 이상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양도를 허용한 규정도 2년 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2년 이상 소유자로 변경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또 착공일로부터 3년(현행 5년) 이내에 착공되지 않는 경우와 공매·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지역 내 재건축 사업 대상구역 중 중층 주공아파트 한 곳만이 사업시행인가를 얻었으며, 화정 주공아파트, 삼촌아파트, 주월동 장미아파트 등 3곳은 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Table with financial indicators: 코스피지수 1,566.37 (+1.39), 코스닥지수 508.72 (-1.84), 금리 (국고채 3년) 4.35% (-0.02), 원·달러 환율 1,218.00원 (-4.40). Includes a note: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정리하고 하고 싶지 않다, 경쟁력 키우게 도와 달라”

금호타이어 김중호 대표

4일 광주공장을 찾은 김중호 금호타이어 대표는 "정리하고는 정말 하고 싶지 않으니 노조가 나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이라다 공장 문을 닫는 것 아니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회사의 뿌리나 다름없다. 잘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회사가 올 상반기 영업 적자만 1천42억원이다. 이래로 가다가 회사가 망한다. GM을 봐라. GM이 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노조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들어주다가 그런 것 아니냐. 타산 지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망하지 말아야 한다. -심각한 경영 위기상황을 일부에서는 체감하

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 회사는 아무리 어려워도 은행 돈을 빌려서라도 제 날짜에 월급을 줬다. 그래서 직원들이 피부에 와닿지 못할 수 있다. 벌써 올해 초 4천억원 이상 빌렸다. 계속 빌릴 수도 없다. -정리하고 방정 통보 등 너무 강경 일변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정리하고는 마지막 방안이다. 이래로 놔두면 파산하게 생겼는데, 규모를 줄이는 것이 낫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그래도 나아지진 않고,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을 뿐이다. 정말 하고 싶지 않다. 노조원들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한다. 임금이 1억원 이상인 현장직원이 200명이 넘는다. 9천만원~1억은 400여명, 8천만~9천만원은 700여명에 이른다. 경쟁 회사의 임금 격차도 2천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불량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휴가 후 노사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은 있는가. ▲일체휴업조(一切唯心遊·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임을 뜻하는 불교용어)이다. 우리 직원들 마음 먹기 나름이다. 진심이면 통한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직원들이 현재 회사 상황을 알고 변화할 때까지 계속 대화할 것이다. 회사가 살려고 정리하고 하고 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는 안될 것이다. -금호타이어 매각설도 있는데. ▲나 몰래 팔아버리려고 하는 걸까. 그런 소문이 도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그런 일은 없다. 실적이 좋지 않아 팔아봐야 돈도 안된다. 또 타이머만큼 경쟁력 있는 사업도 없다. 그러지 않을 것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자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무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는 수완 코리안랜드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951-6800 H.P. 010-3666-8949. 수완 지구. 수완 롯데마트 옆. 팰리스타워빌딩 (분양임대중) 중앙메디컬빌딩. 상업용지, 점포, 원룸용지 매매임대. 아파트 분양권 매매, 임대. "금"매물접수,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대인동상일부동산. (02)223-1140, 0210 011-002-2532.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권으로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원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립니다.